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과 한국교회의 과제

김명배 (송실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

1.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배경
2.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

III.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1. 맥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2.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IV. 오늘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한국사회

V. 나가는 말: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과제

• ABSTRACT •

Reflection on the Economic Movement Christians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terms of Public Theology and the task of the church of Korea

Kim, Myung-Bae

This article is to reflect upon the economic movements Christians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is to look at the tasks of the church of Korea in terms of Public theolog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s were experiencing the economic distress in the explo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is situation, the Christians in Seoul and Pyongyang had developed a large number of economic mov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apitalist Economy on the basis of Silryeokyangseongron. They were especially carried out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based on the Protestant Puritan ethics. Therefore, the article is to evaluate the economic movements Christians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terms of Public theology. And then, through this evaluation, this article researches for what i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people suffering under Today's Neo-liberal Economic Order.

For these purposes, At First, it historically deals with the economic movements of Christians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econdly, it theologially deals with a question that how does the Christian had performed the public responsibility in the area of the economy. Thirdly, It deals with a question what is the Neo-liberal Economic Order and what is the society of Korea influenced by it. Finally, it deals with the tasks of the church of Korea under the Neo-liberal Economic Order in terms of Public Theology.

Key words: Public Theology, The Church of Korea, Neo-liberal Economic Order, Japanese Colonial Rule, Economic Movement, Public Responsibility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한국신학계는 공공신학(a public theology)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교회사, 성서 신학을 막론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원래 “공공신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마틴 마티였다. 그는 1970년대에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을 특성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²⁾ 라인홀드 니버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제 3의 영역으로서 공공을 강조하고, 교회를 이러한 공공에 속하는 자발적인 결사체로 보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공공신학의 과제를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시민사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포함시켰다.³⁾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인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는 니버의 입장을 이어받아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로서의 공공신학을 전개하였다. 즉, 그는 국가와 개인을 중재하는 제 3의 영역인 공공영역 또는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다룬다.⁴⁾

이 글은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를 다루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1920~30년대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성찰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경제적 차원에서 감당해야할 교회의 공적 책임과 과제가 무엇인지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일제하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의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

1)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서울: 선학사, 2008), 106.

2) M. 스택하우스,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15; 문시영, 앞의 글, 104.

3)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공적신학과 공적교회』(서울: 북코리아, 2010), 72.

4) 장신근, 앞의 책, 72.

한 상황 속에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실력양성론에 터하여 자본주의 경제 건설을 목표로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청교도적 개신교윤리에 근거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운동을 펼쳐 교회의 공적책임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사회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공신학적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로 제 2장에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어 1920~30년대 일제하 한국기독교회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경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어떻게 경제영역에서 공적책임을 수행했는지, 그 구체적 운동들을 살필 것이다. 두 번째로 제 3장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평가하고 성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영역에서의 교회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스타크하우스의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이어서 1920~30년대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스타크하우스의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봄으로, 그 공공신학적 의미를 성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장은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공적책임수행의 내용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한국교회의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

1.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배경

1910년대 조선의 강점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식량기지와 원료 생산지, 그리고 상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식민지 경제정책을 폈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령(1911)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였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농민을 한국에 진출시켜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매듭지어진 후 다수의 한국 농민들이 영세한 소작농으로 몰락하거나 유민화 또는 화전민화 되어갔다.⁵⁾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무단통치’로 3.1 운동과 같은 민족적 저항에 부딪치자,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이식자본주의’를 도모하기 시작했다.⁶⁾ 이 당시 식민지 한국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용이 창출되어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어 왔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자, 다양한 새로운 퇴폐 향락문화가 도시의 중심부에 형성되었다. 요리집과 유곽이 들어서고 공창이 문을 열었다. 종로와 북촌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여종업원을 둔 대형 카폐가 생겨났다. 이는 일제가 1909년 주세법과 1916년 주세령을 발표하여 향락문화를 유폐시키고 주류 생산과 주류 소비량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⁷⁾

한편 일제는 1910년 12월 회사령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여 한국인의 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저지하고, 산업부르주아지의 성

5)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서울: 창비, 2011), 156-159; 조기준, 「일제의 경제정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1: 3.1운동 전후의 사회와 경제』(서울: 탐구당, 1980), 49-106.

6)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제 21집, 2008. 258.

7)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집, 2003. 386.

장을 억제하였다.⁸⁾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 전쟁을 통해 성장한 일본 독점 자본의 조선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령을 철폐(1920.4)하였고, 1930년 이후에는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를 위해 한국의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산업분야를 주도하게 하였다. 이는 일제가 자국의 내부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과잉자본을 투자하는 가운데 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함으로써 식민지 체제를 더욱 굳혀갔던 것이다.⁹⁾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실력양성운동을 추진하였다. 워싱턴 군축회의(1921~1922)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민족주의자들은 즉각적 독립운동보다 민족의 실력을 키워 후일을 도모하자는 실력양성론으로 운동노선을 선호하였다.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경제적 실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 몰산장려운동, 기업과 조합설립운동, 절제운동 등을 전개했다. 몰산장려운동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자본주의 경제운동과 기독교 절제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전반에 등장하였던 것이다.¹⁰⁾

2.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

1) 서북지역의 자본주의 경제운동

1920년대 들어와 일제하 국내의 민족주의 진영은 실력양성론을 기치로 경제부분에서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 가운데 평양과 서

8) 강만길, 앞의 책, 185-186.

9) 백종구, 앞의 글, 337-365.

10)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의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85.

울에서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YMCA를 중심으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은 기독교계가 자본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전개한 대표적인 경제운동이었다. 평양의 물산장려회(物産獎勵會)는 조만식과 평양YMCA를 정점으로 1922년 6월 20일 발족되었다.¹¹⁾ 이 물산장려회의 설립취지서는 “조선물산장려와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삼천리가 삼천만 민족의 眞個낙원, 眞個에덴이 되기를 지성으로 갈망하는 바로다.”고 하여 그 기독교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¹²⁾ 평양 물산장려회는 1922년 평양 YMCA회관에 간판을 걸고, 1937년 일제에 의해 해산될 때 까지 매년 음력 설날과 5월 단오에 시가행진을 하며 토산품의 애용을 선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¹³⁾ 특히 평양 물산장려회는 시내 각 교회의 청년회와 부인회, 상공업자, 일반사회단체까지 폭넓게 끌어들여 운동을 전개하였다.¹⁴⁾ 당시 평양 YMCA를 모체로 한 평양의 물산장려회는 지역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의 협의체로 존재하면서 기독교계, 상공업계, 여성계 등을 끌어들여 물산장려, 상공업진흥, 생활개선이라는 세 영역의 경제운동으로 확산되어 나아갔다. 이렇게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상공인층의 적극적인 참여,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 계발된 시민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 내의 폭넓은 공감대, 그리고 몸소 토산품 애용을 실천한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조만식의 개인적 카리스마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¹⁵⁾

한편, 일제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YMCA의 물산장려

11) 강영심,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47, 1993. 154-155;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서울: 혜안, 2001), 258.

12) 『동아일보』, 1920. 8.23

13) 장규식, 앞의 책, 262.

14) 『동아일보』, 1923. 2.9, 2.21, 1924. 2.8, 1925. 1.26, 1927.2.18; 장규식, 앞의 책, 263.

15) 장규식, 앞의 책, 264-265.

운동을 넘어 토착자본가의 자본축적을 계기로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 설립운동으로 나아갔다.¹⁶⁾ 당시 설립된 대표적 기업은 양말공업과 고무 공업이었다. 이 공업들은 일본인 자본에 비해 작은 규모였으나, 물산장려 운동이 본격화하는 1923년~1925년에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 하였다.¹⁷⁾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평양의 양말공업과 고무공업의 경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다.¹⁸⁾ 또한 평양의 기독교계는 청교도적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에 기초하여 근검저축식산운동(勤儉貯蓄殖産運動)을 전개하였다.¹⁹⁾ 1921년 12월에는 김동원, 조만식 등이 평양 YMCA를 중심으로 평양실업저금조합을 설립하였으며,²⁰⁾ 또한 조만식은 조선물산을 장려하고 주초와 사치로 허비되는 금전을 절약저축하여 산업에 투자 하자는 취지로 1926년 10월 평양절약저금식산조합을 창립하였다.²¹⁾ 이 밖에도 1930년 3월 조만식에 의해 평양협동저금조합과 1935년 5월 김동원을 비롯한 동우회원들에 의해 동우저축조합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검저축식산운동은 실제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평양지역 자본주의 경제운동의 한 특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계를 배경으로 한 평양의 기업설립운동은 근검저축식산조합의 설립, 한국인 금융기관 설립시도, 평양상공협회의 설립 등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조선인을 본위로 한 경제적 부흥운동의 촉매가 되었다.²²⁾

16)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 여름, 298-299.

17) 장만길, 앞의 책, 185-193을 참조하라; 장규식, 앞의 책, 266.

18) 주요섭, 「十年만에 본 平壤」, 『別乾坤』 5-8, 1930. 9. 47; 장규식, 앞의 책, 267.

19) 조기준,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77, 507-512.

20) 동아일보, 1921년 9월 3일자

21) 동아일보, 1926년 10월 3일자

22) 장규식, 앞의 책, 271-273; 동아일보, 1928년 12월 22일자.

2) 기호지역의 자본주의 경제운동

서울 중앙YMCA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 인사들은 1923년 1월 20일 공식출범한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 주요세력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물산장려운동의 실행을 표방하며 연희전문 의 염태진, 박태화 등에 의해 발기한 자작회(自作會)는 “조선물산을 장려하여 자작자급의 정신”을 길러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경제적 위기를 구제”하지는 목적 아래 출범하였다. 자작회는 발족이후 강연회를 열어 자작자급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서대문에 사무소를 두고 판매부를 개설하여 조선물산을 각 지방으로부터 주문하여 일반에 싼 값으로 공급코자 하였다.²³⁾

그런데 서울의 중앙YMCA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 인사들은 그들의 경제운동의 목표를 주로 실업교육운동에 두었다. 대표적으로 중앙YMCA학관 공업부(工業部)와 송고실업장(松高實業場)이 그것이었다. 중앙YMCA학관 공업부는 1906년 11월 개설한 황성기독교청년학관 공예교육과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²⁴⁾ 중앙YMCA의 공업교육은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의식을 개혁하고 유능한 기독교적 시민을 양성하며 장차 중소공장을 창업할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할 당시 서울 시내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목공장, 사진관, 철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곳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중앙YMCA 공업부는 물산장려운동에 부응하는 토착적 공업진흥의 유력한 전진기지였다.²⁵⁾

한편 송고실업장은 윤치호가 기독교계 지도자의 배출과 한민족의 경제적 향상을 목적으로 1906년 10월 설립한 한영서원 실업과를 모체로 하였

23) 동아일보, 1923년 1월 12일자; 장규식, 302-303.

24) 「雜報」, 「大韓每日申報」 1906.11.6.; 「雜報」, 「皇城新聞」, 1907.1.8., 1.10.

25) 동아일보, 1923년 11월 6일자. 「青年會 實業部」.

다. 윤치호는 한국인에게는 단순한 인문교육보다 직조, 목공, 인쇄, 제혁, 과수, 원예, 낙농 등의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²⁶⁾ 그리하여 한영서원은 1908년 실업과를 개설하여 중학과, 예비반, 초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공과 기계공업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사립학교규칙'이 개정 공포되자, 한영성원은 1916년 실업과를 폐지하고 인문계 중심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실업장은 일반직공들과 고학생들로 운영되는 독립된 공장으로 탈바꿈하였다.²⁷⁾ 송고실업장은 1929년에는 조직을 변경하고 남감리회 선교부 경영에서 일반회사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송고 실업장의 사장 김정호와 상무 황중현은 조선물산장려회에 상공인 출신 이사로 참여하여 물산장려운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기독교 절제운동

금주, 금연을 내용으로 하는 절제운동은 기독교 수용 초기 청교도적 신앙을 지닌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신자가 마땅히 가질 덕목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식민지화 된 후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절제운동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감리교의 절제운동은 1912년 '사회개량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1930년 양 감리회가 통합하면서 총리원에 사회사업국을 조직하고, 그 아래 절제부와 각 지방에 절제회를 설치하였다.²⁸⁾ 감리교는 각 지방에 순회 금주강연을 실시하였으며, 1924년부터는 금주선전주일로 정하고 각 교회마다 가두시위선전을 행했다.²⁹⁾ 특히 감리교 엡윗청년회는 각 지방

26) T. H. Yun, The Anglo-Korean School, Song Do, *Korea Mission Field* Vol. III No. 9, 1907.7. 144.

27) 장규식, 앞의 책, 309.

28) 윤은순, 앞의 글, 136.

29) 『제17회 조선기독교미감리교회 연회회록』, 1924년.

의 금주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금주운동 선전빠라 배부, 시위행렬, 가극, 음악회, 강연회가 그 대표적 방식이었다.³⁰⁾ 장로교의 절제운동은 처음에는 기독교청년면려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32년 5월 5일 평양신학교에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조직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조만식, 채필근, 송상석 등이 결성한 이 단체는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약질, 폐습 등의 해악을 제거하여 자아의 영원한 인격을 건설하고 가련한 생명을 구제하며 사회 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³¹⁾을 그 취지로 삼았다. 장로교의 기독교청년면려회는 1920년대부터 지회별 금주선전 운동을 해오다가 1930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오월 단오를 기하여 연합회 주최로 전조선 금주운동을 실시하였다. 1938년 면려회가 해체되기까지 전개된 금주선전은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의 면려회가 총망라된 운동이었다.³²⁾

또한 1911년에 초교파적 절제운동단체로 결성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22년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 총무 틴링(C. I. Tinling)의 내한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9월 여성교사 중심의 기독교여자금주회를 조직하였다.³³⁾ 이후 틴링과 함께 순회강연을 하며 큰 활약을 한 손메레를 중심으로 1924년 8월 28일 이화학당에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연합회가 결성되어, 산하 각 지역에 지회를 조직하였다.³⁴⁾ 이들은 순회총무를 두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고 절제회 지회를 조직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사를 초청하여 금주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가두시위와 소비조합, 물산장려조직, 야학설립, 구제활

30) 윤은순, 앞의 글, 191.

31) 조선일보, 1932년 5월 20일자; 「기독교신보」, 1932. 5.25.

32) 조선일보, 1930년 5월 4일자 / 1930년 5월 27일자/1931년 8월 17일자 / 1931년 8월 29일자 / 1931년 9월 2일자 / 1931년 9월 11일자.

33) C. I. Tinling, 「The W. C. T. U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Jan., 1924, 227-228.

34) 「기독교신보」, 1932. 4. 27.

동도 있었다.³⁵⁾ 이처럼 1920~30년대에 각 교단은 물론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진 금주, 금연, 소비절약 등의 절제운동은 몰산장려운동, 기업설립운동과 더불어 기독교계가 전개한 대표적인 경제운동의 하나가 되었다.

III.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1. 맥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스택하우스에게 신학은 본질상 ‘공공신학’이다.³⁶⁾ 그에 의하면, “공공신학이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정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학자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³⁷⁾ 그런데 그에게 신학은 두 가지 이유로 공공의 성격을 띤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공해야만 한다

35) 『동아일보』, 1933. 2. 8; 『기독신보』, 1933. 7. 26.

36) 김현수, “자유주의자 vs 분파주의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2012, 279.

37) Max L.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 시민사회, 기독교윤리』(서울: 도서출판 페스터 하우스, 2005), 15. 한편 독일의 공공신학자인 몰트만은 ‘공공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역사의 공적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관심과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한다. 즉, 공공신학은 사회의 공적 문제들에 대한 신학의 공적 상관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67; 에일학과의 티먼은 “공공신학은 기독교적 확신과 기독교 공동체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21; 한편 벤은 공공신학은 신학이 “살아있는 종교적 전통의 공적인 환경인, 우리의 공동적 삶의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역에로의 침투를 말한다”고 하였다.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Minenea polis: Fortress Press, 1995), 4.

고 믿는 것이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난해한 것(esoteric)이거나, 권력자의 전유물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가능하며 필요불가결하며, 또한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마르크스주의자들과도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이 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들과 정책들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이다.³⁸⁾ 그러므로 스택하우스에게 신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윤리적인 ‘공공’의 성격을 띠며, 이 ‘공공신학’은 개인과 국가를 중재하는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에서의 기독교윤리에 관해 성찰하는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다.

스택하우스는 이 ‘공공신학’의 구체적인 실천적 주제들로 종교, 정치,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결혼과 가족의 문제, 인권, 심지어 교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한다.³⁹⁾ 그는 공공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종교는 계몽주의 이래 삶의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공적인 영역에서 퇴거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의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 필요하다.⁴⁰⁾ 특별히 그는 세계화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독교 신학은 비기독교 전통들, 혹은 타종교들과 때로는 상호보완적이며 때로는 갈등하면서 세계화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종교의 사사화(私私化)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종교와 신학의 사회적 본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한편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의 또 다른 주제로

38)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Grand Rapids, MI:Eerdmans, 1987), xi; 이장형, “세계화 문제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세계대교회윤리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65를 참조하라;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56.

39) 김명배, 「구한말 사회민족운동에 대한 공적신학적 성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19.

40)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公-私 이분법을 넘어서」, *세계대교회윤리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52.

인권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권은 종교적 신앙고백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서구의 교회와 자발적 결사체의 중심 가치로 정의된다.⁴¹⁾ 그는 이런 차원에서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택하우스는 결혼과 성의 문제도 공공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그는 동성애를 포함한 가족과 가정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요소들을 망라하면서, 이를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⁴²⁾ 이러한 공공신학의 실천적 주제들은 스택하우스가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⁴³⁾

그런데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특히 삶의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은 경제활동 혹은 경제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를 포괄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⁴⁵⁾ 스택하우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경제 및 사회관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신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한 사회의 종교적 특성이 그 사회의 경제발전, 인권의 보호와 강조, 그리고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문화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⁴⁶⁾ 스택하우스

41) Max L. Stackhouse, *Cre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A Study in Three* (Eerdmans Pub, 1984), 259; 문시영, 앞의 글, 53.

42) Max L. Stackhouse, *Covenant and Commitments: Faith, Family, and Economic Life*(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3; 문시영, 앞의 글, 53.

43)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119.

44) 문시영, 앞의 글, 112; Max L. Stackhouse,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r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Stackhouse,ed.*(Abingdon Press, 2003), 11.

45) 문시영, 앞의 글, 113; Max L. Stackhouse, 앞의 글, 16.

46) 이장형, 「세계화 문제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78;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35; Max L. Stackhouse, with Lawl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assy*(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24.

는 이 과정에서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에토스의 중요한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 에토스 형성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⁴⁷⁾ 나아가 그는 기업의 문제와 경제윤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본들 중에 도덕자본(mor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핵심은 기독교의 신앙 체계와 삶의 방식, 즉 에토스에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한편, 스택하우스에 의하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사회에 정직을 심어주고 인격적 공동체와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삶과 공적 영역에 유익하다.⁴⁹⁾ 그는 이러한 기독교의 공적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세계화의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신학적 성격, 기업의 교회적 성격, 경영의 청지기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오늘의 과학 기술, 기업, 경영이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밝히면서 여기에 도덕성과 영성을 불어넣어 본래적 정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공적인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⁵⁰⁾

나아가 스택하우스는 기업의 교회적 성격을 논하면서, 기업을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기업과 영성의 문제를 관련시킨다.⁵¹⁾ 그에게 기업의 목적은 주주나 기업경영인을 위한 이윤창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라고 보았다. 기업이란 공동체의 물질적 복리에 기여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업을 인류를 위한 은혜의 대리인 또는 은혜의 표시요, ‘세속에 봉사하는

47)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113;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82-85.

48) 문시영, 앞의 글, 114.

49)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57.

50) 장신근, 앞의 글, 58;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25.

51) 이장형, 앞의 글, 77.

교회(worldly ecclesia)로 부르기도 한다.⁵²⁾ 그러나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인이 모든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은 봉사의 결과이며 더 나은 봉사의 조건으로서 이윤이다.⁵³⁾ 요컨대 기업은 이윤의 창출을 통해 그 신적 소명을 감당할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택하우스는 청지기 개념의 확대적용 하였다. 교회 안에서 특정한 직분에 충실한 것만을 청지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하는 몫까지도 청지기 개념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택하우스는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할 청지기의 책임을 말하기도 한다. 교회는 각자에게 이기적 관심을 극복하고 섬김을 통한 소명을 실천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⁴⁾ 이런 차원에서 소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제도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와 관련되며,⁵⁵⁾ 기업의 소명과 기업인의 청지기적 사명은 공적신학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다. 그는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통찰을 더욱 확장시켜 그 범위를 시민사회라는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 사회윤리를 공공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⁵⁶⁾

52) 문시영,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공공성」, 『공적신학과 공적교회』(서울: 북코리아, 2010), 146.

53) 문시영, 앞의 글, 146.

54) 문시영, 앞의 글, 147.

55) 이장형, 앞의 글, 69.

56)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公-私 이분법을 넘어서」, 52.

2.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1922년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독립을 추구했던 민족주의 진영은 위싱턴 군축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실력양성론을 주장하며 교육, 경제방면에서 민족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 가운데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경제운동은 민족국가 건설 혹은 민족경제건설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물산장려운동은 한국인 소유 민족기업을 육성하고 일본인 대자본의 경제침략을 저지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이었다.⁵⁷⁾ 그런데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기업과 조합설립, 실업교육, 절제운동 등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은 스택하우스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공신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은 현대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시민사회영역’에서의 공적책임 수행한 ‘기독교사회윤리’였다. 스택하우스에 의하면, 공공신학은 국가와 개인을 중재하는 제 3의 영역 혹은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이다.⁵⁸⁾ 그러므로 교회는 공익적 목표나 이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운동단체(NGO)와 협력하여 대사회적 공적책임 수행을 시민운동의 담당자로, 내부적 비판자로, 후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⁵⁹⁾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일제하 한국 기독교계는 YMCA 등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공적책임 수행하였다.

특히 1920~30년대 서울과 평양YMCA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

57)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18.

58) 장신근, 앞의 책, 72.

59) 이혁배, 『한국기독교윤리쟁점』(서울: 동인, 2011), 46.

주도된 물산장려, 기업설립운동, 실업교육운동 등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시민사회영역에서 이념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 논리’에 기초한 민족경제건설운동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평양 물산장려회의 취지서에 잘 나타나있다.

故로 吾人 이 이에 大書特書하고 絶叫高唱하는 비는 自作自給하자 함이니 卽 朝鮮物産을 獎勵함시오. 또 換言하면 保護貿易을 意味함이니 이것이 우리 朝鮮人에게 가장 큰 問題라 하노라.... 現今 歐美各國은 더와가치 商工業이 發達되었으니 自由貿易主義를 행하는 國은 하나도 없고 다 保護貿易主義를 행하니 由此觀之 尙대 先進이오 富強한 國도 如彼히 國産을 壯麗하고 貿易을 保護하거든 又況 落伍이오 貧弱한 朝鮮이리오.⁶⁰⁾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민족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한 ‘민간차원의 보호무역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물산장려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만식에게 나타나는데, 그는 특히 관서지방의 오랜 평민적 자치질서를 바탕으로 산업, 교육, 문화, 사회사업 방면에 걸친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통해 민족경제건설과 자립의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⁶¹⁾ 물산장려운동의 인사 가운데 한사람이며 산정현교회의 장로였던 김동원 또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우리 조선인으로서서는 구태여 위정자들에게 희망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경제적 대단결을 만들어서 이 결합에서 구출케 함이 가할 것”⁶²⁾이라고 하여 시민사회 차원의 경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서지방의 사회와 기독교계의 정서가 ‘시민사회 원

60) 『동아일보』, 1921. 9. 22.

61) 장규식, 앞의 책, 279.

62) 金東元, 「平壤人士의 平壤觀」, 『동아일보』, 1928. 1. 1; 장규식, 앞의 책, 279에서 재인용.

리'와 결합하여 국가와의 관계에서 시민사회를 앞세우는 운동으로 나갔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제에 의해 수탈당하고, 피폐된 민족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이들은 대표적인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YMCA를 중심으로 '자작회', '소비조합', '저축조합',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 등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을 결성하여 공공의 영역 혹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물산장려운동, 기업과 조합설립운동, 실업교육운동, 절제운동 등을 전개하여 교회의 경제적인 공적책임을 수행했던 것이다.

2) 청교도적 개신교 경제윤리에 근거한 경제운동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은 스태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주장하는 기독교적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즉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기독교적 에토스에 근거한 경제운동이었다. 베버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칼뱅은 중세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배제하고, 절제와 검소를 경제적 도덕적 미덕으로 보았으며,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은 청교도들에게 전해져 금욕, 절제와 근면,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청교도적 개신교 경제윤리를 창출하였다.

1920년대 당시 평양의 기독교인들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은 관서지방의 신흥 상공인층과 그들의 평민문화를 토양으로 싹튼 경제윤리이자, 청지기적 소명을 근거로 한 청교도적 개신교 경제윤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독교적 에토스에 기반한 경제사상은 관서지방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안창호의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의 무실역행론은 일제하 관서기독교 민족운동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가운데 '무실'은 '진실의 탐구'로서 사회적 방면에서의 '공동신용'의 확립을 의미하였으며,⁶³⁾ 또한 신용의 자본으로서 '무실'은 노동역작을 강조하는 평민들의

63) 장규식, 앞의 책, 282.

경제윤리였다.⁶⁴⁾

슬프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의 생활이 소위 하급이라고 일컫는 평민들은 실지로 노동력작하여 살아오았거니와 소위 중류이상 상류인사라는 이들은 그 생활한 것이 농사나 장사나 장색이나 자신의 력작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그 생활의 유일한 일은 험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였습니다.⁶⁵⁾

이렇게 신용과 더불어 노동역작을 강조하는 경제윤리로서 ‘무실’은 막스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으로 거론한 금욕, 절제, 근면의 개신교의 윤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⁶⁶⁾ 또한 이러한 면에서 전형적인 인물은 이승훈이었다. 그는 청교도적 개신교 윤리인 근면과 성실로 신용을 쌓아 유기공장과 상점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하고, 이를 오산학교 설립에 투자하여 교육구국운동을 펼쳤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안창호를 비롯한 관서지방의 신흥 상공인층이 칼뱅주의와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되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⁶⁷⁾

그런데 이러한 청교도적 개신교 경제윤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한 기호지역의 자본주의 경제운동에도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YMCA 회원으로 연희전문상과 교수를 역임한 최순주의 “칼뱅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생산을 늘리고 사치를 피해 저축성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⁶⁸⁾ 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

64) 安昌浩, 『同志 諸位에게』(1921) 『安島山全書(中)』, 汎梁社出版部, 1990.414.

65) 장규식, 앞의 책, 284에서 재인용.

66) 장규식, 앞의 책, 285.

67) 이러한 주장은 장규식의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82-284에 잘 나타나 있다.

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이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기독교적 에토스 즉, 기독교의 신앙체계와 삶의 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업설립과 실업교육을 통한 공적책임의 수행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기업과 조합설립운동은 공공의 영역에서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한 공적 책임의 수행이었다.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에 의하면,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로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곳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또한 기업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 의하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관으로 공동체의 물질적 복리에 기여하는 소명을 지녔으며, 인류를 위한 은혜의 대리인 또는 은혜의 표시요, 세속에 봉사하는 공회다. 그러므로 기업은 교회적 성격을 지닌다. 더 나아가 그는 청지기 개념을 넓게 적용하여 기업과 같은 공공의 영역에도 적용하였다.⁶⁹⁾

그런데 일제하 평양의 기독교 경제운동은 청교도적 개신교 경제윤리에 입각하여 아편재배와 매매, 주류제조나 판매, 고리대금융 등과 같은 것들은 신자의 정당한 벌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⁷⁰⁾ 기업을 민족자산의 육성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복리의 기관으로 생각하면서 기업설립운동을 펼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평양에서 양말공업과 고무공업을 중심으로 합자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면노작(勤勉勞作)함으로써 금전을 저축하여 이것을 공익과 선교와 자선사업에 선

68) 崔淳周, 「教會發展과 經濟生活(4)」, 『基督申報』, 1931.1.21.

69) 문시영, 앞의 글, 146.

70) 鄭尙仁, 「信者와 金錢」, 『神學指南』 12-3, 1930.5. 37-40. 정상인은 수양동우회원으로 선천남교회 목사, 장로회평북노회장(1932)을 역임한 관서기독교계의 중진이었다. 장규식, 앞의 책, 290.

용함으로써 빈궁을 구제하고 문명부강과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⁷¹⁾ 그리하여 이들의 근검저축식산운동은 저축조합과 소비조합, 한국인금융기관의 설립, 그리고 상공협회를 결성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같은 사실들은 일제하 평양 기독교인들이 기업을 단순히 이윤창출의 수단으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봉사의 기관으로, 청지기적 소명의 기관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공적책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은 실업교육을 통하여 경제영역에서의 공적책임 수행하였다. 특히 기호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경제운동의 목표를 실업교육운동에 두고 중앙YMCA학관 공업부와 송고실업장을 설치하였다. 중앙YMCA의 공업교육은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의식을 개혁하고 유능한 기독교적 시민을 양성하여 기업을 운영할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윤치호에 의해 설립한 한영서원내에 설치된 송고실업장 또한 인문교육보다 민족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물산장려회의 출범을 전후하여 기호지방의 기독교계 자본주의 경제운동인 실업교육은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을 통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형성하려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는데,⁷²⁾ 이는 기호지역의 기독교계가 식민지 수탈경제 속에서 실업교육을 통해 기독교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족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했던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4) 금주·금연운동을 통한 공적책임의 수행

금주, 금연을 통한 기독교 절제운동은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세상의 변

71) 「기독교신보」 1920. 7.21; 장규식, 앞의 책, 292.

72) 「廣告」, 「基督申報」, 1927. 4. 6.

화와 개혁을 위한 경제운동이며, 공적인 책임의 수행이었다. 스텍하우스에 의하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변혁과 개혁을 추구하며 사회에 정직을 심어주고 인격적 공동체와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삶과 공적 영역에 유익하다.⁷³⁾ 이러한 차원에서 기독교 절제운동은 개인 및 민족의 정신개조, 폐습타파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를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경쟁의 시기로 파악하고, 금주의 실천으로 시간과 건강을 보전하고 정신수양을 하는 세계적 대세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은 퇴폐한 사회도덕과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민족의 생활을 혁신할 수 있는 운동으로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금주, 금연을 비롯한 기독교 절제운동은 열악한 경제 상황을 소비 절약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와 자아개조수양운동, 풍속개량운동, 농촌개량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던 문화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일제하 기독교인들이 전개했던 금주, 금연운동 곧 기독교 절제운동은 현대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경제운동이자, 인격개조와 윤리적 원칙, 그리고 도덕적 목적을 추구했던 공공의 영역에서의 책임 수행운동이었다.

IV. 오늘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한국사회

1973년 제 1차 오일쇼크와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경기불황의 늪에 빠지자,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엑크(Friedrich Hayek)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창하였다. 이들은 불경기의 가장 큰 원인이 기름

73) 장신근, 앞의 책, 57.

값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에 따른 이윤감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시카고학파는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꺼리고 또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므로 이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여 불황이 장기화 되었다고 주장했다.⁷⁴⁾ 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과 영국의 수상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가 1980년경부터 국가이념으로 채택하면서 학문적 경제학에서 제국의 경제학으로 탈바꿈했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20세기 후반의 상황 때문에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질서가 되었다.⁷⁵⁾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가능한 한 국가의 경제적 간섭을 줄이고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제 질서이다. 그리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정리하고, 파견노동제, 비정규직, 성과급제도 등을 통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저소득배려,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부자감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법 등을 철폐하게 되었다.⁷⁶⁾ 이는 세계화 시대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바탕을 위한 경제정책이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장점은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는 국가보다 국민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권의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인간을 노력하게 만들고, 인간의 창의성을 자극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과 재화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 점 때문에 노박(Michael Novak)을 비롯한 북미의 우파 신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세계를 경제적으로 구원하는 경제 질서로 신학적으로 축성했다.⁷⁷⁾

74) 임희국, 「하나님의 경제 선언문」, 이 글은 2012년 4월 6일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에서 출판할 『하나님의 경제』에 들어갈 선언문으로 집필한 내용이다.

75) 김명용, 「하나님의 시장경제」, 4. 이 글은 2012년 1월 30일 전주 한일장신대에서 열린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정기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76) 임희국, 앞의 글.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세계 경제를 투기 자본주의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위험은 그동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경제위기 속에 실재적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과도한 경쟁은 노동 현장을 잔혹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훼손시키고, 노동자들은 이윤과 경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은 원가절감으로 치닫게 되고 원가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셋째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고, 제3세계는 제1세계에 종속되는 종속경제의 위험이 매우 큰 경제 질서이다. 넷째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약육강식의 정글경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 희생자들을 만들어 낸다. 다섯째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결정적으로 파괴시키고 승자의 독식을 정당화시켜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증가시킬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⁷⁸⁾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실천의 30년 동안 세계는 계속적인 경제위기의 연속이었다. 러시아의 경제 위기,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경제위기 등 세계는 수많은 경제 위기로 출렁거렸고, 마이너스 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졌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즈 사태로 시작하여 오늘의 그리스 경제 위기도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는 그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결함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⁷⁹⁾

77) 김명용, 앞의 글, 1-5; 박화경,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 11. 이 글은 2012년 4월 27일 장신대에서 열린 공공신학과 교회연구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78) 김명용, 앞의 글, 6-12.

79)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76, 2012. 4월호,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란 이름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던 1996년에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그 문을 열었고, 가입 직후에 국회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유 시장경제질서, 규제완화, FTA(자유무역협정)중시, 공기업과 의료, 그리고 방송의 민영화, 세금 완화, 복지예산 축소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 부자감세정책,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추진되었다.⁸⁰⁾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로 야기된 20대 80, 혹은 1% 대 99% 사회, 금융자본의 재벌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노동시장 유연화로 야기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 등을 야기했다.⁸¹⁾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V. 나가는 말: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과제

지금 한국교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산업화 시대에 농어촌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맞물려 대도시에 교회가 집중적으로 설립되었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상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個) 교회들이 도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 성장하여 난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경쟁논리에 맞물려 사회의 양극화 현상처럼 교회의 양극화, 즉 교인 수의 양극화, 교회 재정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⁸²⁾ 1970~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을 견인하고, 세

80) 임희국, 앞의 글.

81) 김명배, 앞의 글, 74.

계교회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던 한국교회가 현재 생존자체를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⁸³⁾

이러한 한국사회와 교회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1920~30년대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맞서 공공의 영역에서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경제운동을 펼쳐 교회의 공적책임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속에 있는 한국사회에 교회가 '경제적 정의'와 '경제적 민주화'⁸⁴⁾를 위한 구체적 운동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필자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의 중심세력인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인, 정부 관료, 언론,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되었으며, 유일한 자본주의 경제제도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경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신학자들의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요청된다. 더 나아가 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목회자들에 대한 경제교육과 개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을 통한 평신도들의 의식의 각성이 요청된다.

82) 임희국, 앞의 글.

83) 김명배, 앞의 글, 74.

84)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야기된 부의 불공평한 분배와 양극화의 심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자들의 몰락, 노동시장 유연화로 야기된 비정규직과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조류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가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힘이 약할 경우 국가는 친시장적 영역으로 전락한다. 반면 시민사회의 힘이 강할 경우 국가는 시민사회에 우호적이 된다. 결국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역학구도를 고려해보면 한국교회의 과제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 이런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인 교회와 시민사회의 대표적 행위자인 NGO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앞으로 시민운동의 담당자로, 내부적 비판자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나가야 한다.

셋째로 한국교회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된 후 한국경제는 자본의 재벌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유연화로 야기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 20대 80, 혹은 1% 대 99%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경제적 정의가 담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한국교회는 교회안의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농어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본격화 한 후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었으며, 대형교회로의 수평이동은 중소교회를 고사 직전에까지 몰아가고 있다. 교회의 빈부격

차는 극에 달하여 교회의 80%이상이 미자립 상태이며 대리운전을 하는 목회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독신보』. 1920년 7월 21일자 / 1923년 10월 17일자 / 1926년 1월 23일자 / 1927년 4월 6일자 / 1928년 1월 11일자 / 1932년 4월 27일자 / 1932년 5월 25일자 / 1933년 7월 26일자.
- 『農民』. 1933년 6월 26일.
- 『동아일보』. 1920년 8월 23일자 / 1921년 9월 3일자 / 1923년 1월 21일자 / 1923년 2월 9일자 / 1923년 2월 21일자 / 1923년 11월 6일자 / 1924년 2월 8일자 / 1925년 1월 26일자 / 1926년 10월 3일자 / 1927년 2월 18일자 / 1928년 1월 1일자 / 1928년 12월 22일자 / 1933년 2월 8일자.
- 『大韓每日申報』. 1906.11. 6.
- 『別乾坤』. 5-8, 1930년 9. 47.
- 『신학세계』. 1926년 7월, 11권 6호.
- 『조선일보』. 1930년 5월 4일자 / 1930년 5월 27일자 / 1931년 8월 17일자 / 1931년 8월 29일자 / 1931년 9월 2일자 / 1931년 9월 11일자 / 1932년 5월 20일자.
- 『皇城新聞』. 1907년 1월 8일자 / 1907년 1월 10일자.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11.
- 강영심.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가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47. 1993.
-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제 21집. 2008.
- 金東元. 『平壤人士의 平壤觀』.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자.
- 김명배. 『구한말 사회민족운동에 대한 공적신학적 성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북코리아, 2010.
- _____. 『민주화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2012. 4.
- 김명용. 『하나님의 경제』. 공적신학교회연구소. 2012. 1.30일 정기학술 발표문.
- 김현수. 『자유주의자 vs 분파주의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2012.
- 문시영.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공공성』.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북코리아,

2010.

- _____.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 16집. 서울: 선학사, 2008.
- _____.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公-私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박화경.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 공적신학교회연구소. 2012. 4. 27일 정기학술 발표문.
- 백종구. 「한국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집.
-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安昌浩. 「同志 諸位에게」. 『安島山全書(中)』. 汎梁社出版部. 1990.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 여름.
- 오미일. 『경제운동』. 서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이혁배. 『한국기독교윤리쟁점』. 서울: 동인, 2011.
- 임희국. 「하나님의 경제 선언문」. 공적신학교회연구소. 2012. 4. 27일 정기학술 발표문.
-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의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2001.
-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북코리아, 2010.
- 정태현. 「일제하 주세제도의 시행 및 주조업의 집적 집중 과정에 대한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40. 1992.

- 鄭尙仁. 「信者와 金錢」. 『神學指南』. 1930.5.
- 조기준. 「일제의 경제정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1: 3.1운동 전후의 사회와 경제』. 서울: 탐구당, 1990.
- 조기준.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서울: 大旺社, 1977.
- 崔淳周. 「教會發展과 經濟生活(4)」. 『기독교신보』 1931.1.21.
- M. 스택하우스.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M.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 시민사회, 기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패스터하우스, 2005.
- Yun, T. H. The Anglo-Korean School, Song Do. *Korea Mission Field Vol. III* No. 9. 1907.7.
- Benne, Robert.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enea polis: Fortress Press, 1995.
- Stackhouse, Max L,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A Study in Three Cultures*, William Eerdmans Pub, 1984.
- Stackhouse, M.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Grand Rapids, Mi:Eerdmans, 1987.
- Stackhouse, Max L, *Covenant and Commitments: Faith, Family, and Economic Lif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Stackhouse, M.L.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r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Stackhouse,ed*, Abingdon Press, 2003.
- Stackhouse, M.L with Lawl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i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ass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yudies Institute, 2002.
- Tinling, C. I. The W. C. T. U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Jan., 1924.
- Thiemann, Ronald F,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논문투고일 : 2012. 04. 30

심사게시일 : 2012. 05. 17

게재확정일 : 2012. 06. 22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기독교 사회윤리적 차원을 다루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하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의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실력양성론에 터하여 민족자본주의 경제 건설을 목표로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청교도적 개신교윤리에 근거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운동을 펼쳐 교회의 공적책임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민족자본주의 경제운동을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사회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공신학적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이 글은 우선 제 2장에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어 1920~30년대 일제하 한국기독교교회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경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어떻게 경제영역에서 공적책임을 수행했는지, 그 구체적 운동들을 살필 것이다. 두 번째로 제 3장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평가하고 성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영역에서의 교회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이어서 1920~30년대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경제운동을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봄으로, 그 공공신학적 의미를 성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장은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 5장에서는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의 경제적 공적책임수행의 내용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한국교회의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신학,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 신자유주의 경제, 한국교회, 공적책임